

‘89년 경제활동 인구’ 이모저모 90.6.10

◇...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9일 발표한 ‘경제활동인구연보’를 보면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1천7백97만5천명으로 88년에 비해 67만명(3.9%)이 늘어났다.

이 가운데 취업자가 1천7백51만5천명, 실업자가 45만9천명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. 이에 따라

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좋은 대조를 이룬다.

◇...취업자들의 학력이 점차 높아지면서 대졸 이상의 비율이 13.1%나 돼 6년 전에 비하면 4.9%포인트, 고졸도 36.4%로 9.5%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졸 이하의 50.5%로 줄어들었다.

주당 평균 취업시간 54.5시간 여성참가율 46.5%...매년 증가

경제활동인구를 15살 이상 인구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은 59.5%로 한해 전보다 1%포인트 늘어나면서 84년 이후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.

남녀별로는 남자의 참가율이 73.3%로 최근 들어 정체상태에 들어선 반면, 여자는 46.5%로

취업자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가 59.3%, 여자가 40.7%로 6대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.

연령별로는 55살 이상의 비중이 1년 전보다 0.8%포인트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, 취업구조의 고령화를 엿볼 수 있다.

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

의 지위별로는 피고용자가 59.1%로 가장 많고, 다음이 자영업자(28.8%), 가족종사자(12.1%) 순으로 나타났다.

◇...취업자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54.5시간으로 집계돼 법정근로시간(주당 46시간)보다 8.5시간씩 일을 더 하고 있는 셈이다.

그렇다고 취업자들이 모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

표하는 실업률은 ‘현실’ 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.

◇...지난해 실업률 2.6%는 88년보다 0.1%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편이 아니다. 특히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. 88년 현재 미국 5.4%, 캐나다 7.8%, 영국 8.4%, 이탈리아 12.0%, 서독 8.7%였다.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았으며, 대만(1.7%), 홍콩(1.4%)은 더 낮았다.

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.8%로 고졸(3.5%)보다 1.3%포인트나 높았으며, 중졸 이하(1.3%)와 대비하면 3배 수준이어서 대졸 이상의 취업난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.

연령별로는 24살 이하가 6.8%로 가장 높고, 25~54살이 2.1%, 55살 이상이 0.7%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〈이경 기자〉